

제16회 독서주간기념
제1회 한국잡지전시회

展示雜誌 解題目錄 (2)

解題 · 金 根 洙

新思潮 新思潮社, 1950—1951.

本誌는 現象보다는 本質을, 時流보다는 根本的인 問題를 究明·探索하는 高級한 哲學的 綜合 文化誌로 出發한 雜誌로서 20世紀 後半에 生起되는 모든 思潮를 究明·追求하여 우리가 志向할 무엇인가를 探索해 보려는 의도에서 (創刊辭 參照) 1950年 5月 1日 創刊되었으나, 事變으로 中斷되었다가 1951年 11月 10日 通卷 2卷 2號로 終刊되었다.

發行人: 金後今

戰時科學 戰時科學研究所, 1951—

本誌는 戰時科學研究所의 機關誌로서 純綜合學術雜誌다. 本誌는 1951年 8月 15日 避難地 釜山에서 創刊되었다.

編輯人: 趙奎東, 發行人: 金東一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952—

本誌는 1952年 11月 1日에 創刊되어 지금도 간행을 계속하고 있는 國語國文學會의 기관지인 국어국문학 연구잡지다.

원자: 梁在淵(창간호)

思想界 思想界社, 1952—1970

思想(1—4號)를 改題한 것.

本誌는 1952年 8月 21日에 創刊되어 205號의 誌齡으로 1970年 5月 筆禍事件으로 廢刊되었다. 本誌는 現代人的 教養誌로서 最高峯의 地位를 차지한 잡지였다.

編輯 兼 發行人: 張俊河, 뒤에 夫浣憐

歷史學報 首都文化社, 1952—

本學報는 <國內 歷史學의 새로운 建設을 目的으로 하는> 歷史學會의 機關誌로서 1952年 9月 10日에 創刊되어 繼續 刊行되고 있는 歷史學의 좋은 學報다. 創刊號는 避難地 釜山에서 刊行되었다.

編輯人: 洪以燮

自由藝術 自由藝術人聯合會 1952

本誌는 反共의 立場에 處해 있는 藝術의 全領域에

參加하는 모든 良識의 文化人으로 組織된 自由藝術人 聯合의 機關誌로서 綜合的 月刊 藝術誌이다. 1952年 11月 5日 避難地 釜山에서 創刊되어, 創刊號로 終刊되었다.

文化世界 希望社, 1953—1954.

本誌는 1953年 7月 1日에 創刊되어 1954年 2月 1日 通卷 第6號로써 終刊된 月刊 文化誌다.

編輯·發行 兼 印刷人: 金鍾琬

文化春秋 文化春秋社, 1953—1954

本誌는 韓國文化 및 世界文化에 貢獻하고자 創刊된 月刊誌로서 1953年에 創刊되어 1954年 2月 1日 通卷2號로써 終刊되었다.

編輯 兼 發行人: 李貞根

反共 新聞의 新聞社, 1658—

本誌는 知性的인 종합잡지로서 月刊誌다.

1958年 1月 1日에 創刊되고 創刊號는 46版 160面이었다.

編輯 兼 發行人: 崔興朝

首都評論 首都文化社, 1953—

本誌는 月刊 綜合誌로서 避難地 釜山에서 1953年 6月 1日 創刊되었다.

本誌는 空理空論의 弊習을 揚棄하고 國民의 實生活에 많은 도움을 주는 言論이 되고자 하고, 무엇보다도 祖國을 애뜻이 여기고, 가장 隣人을 사랑할 줄 아는 市民의 소리와 內外時事解説 等を 실고자 한 것이 그 特性이라 하겠다.

編輯 兼 發行人: 邊宇景

時調研究 時調研究會, 1953—

本誌는 時調研究會의 機關誌로서 隔月刊 時調研究誌다. 1953年 1月 5日 創刊되고는 곧 終刊되었다.

編輯 兼 發行人: 高斗東

現代公論 反共統一聯盟, 1953—1955

本誌는 反共統一聯盟의 機關誌로서 1953年 10月 25

일에 創刊되어 通卷 第3卷 第1號로 1955年 1月 1日 終刊되었다. 反共的 綜合 月刊誌.

發行人: 李允榮, 編輯人: 宋元英 뒤엔 柳致眞

教育 서울大學校師範大學教育會, 1954—

本誌는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教育會의 機關誌로서 1954年 7月 15日 創刊되었다.

編輯 兼 發行人: 高光萬

文學藝術 文學藝術社, 1954—1957

但 “文學藝術”의 創刊號와 2號까지 “文學과 藝術” 本誌는 月刊 純文藝誌로서, 每面을 二段으로 하고, 外國作品을 많이 採擇함을 그 特色으로 한 雜誌였다. 1954. 4. 1—1957. 12. 1. 通卷26號

編輯 兼 發行人: 吳泳鎭

새벽 새벽사, 1954—1960.

本誌는 1926年 5月 20일에 創刊되어 通卷40號로 1932年 11月 1일에 終刊된 “東光”을 復刊 改題한 것으로서, 島山 先生의 務實力行의 精神을 이어 받은 評論·教養·學術·文化 綜合雜誌다.

1954年 8月 1일에 創刊되어 1960年 12月 15日 通卷 7卷 12號로 終刊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 朱耀翰

成均學報 成均館大學校, 1954—

本學報는 成大 教授·講師들의 人文科學, 社會科學 自然科學 등의 綜合的 學術 論文集으로서 1954年 2月 에 創刊되었다.

編輯 兼 發行人은 表示되어 있지 않다.

詩作 詩作社, 1954—1956

本誌는 詩專門의 季刊誌로서 1954年 4月 20일에 創刊되어 1956年 8月 30일에 通卷 6輯으로 終刊된 每號 菊版 20餘面에서 50餘面의 작은 雜誌였다.

編輯 兼 發行人: 高遠

愛鄉 愛鄉文化社, 1954—

本誌는 實利的이요 趣味的이면서 農村人의 教養을 높이며 農村文化 向上에 誠과 熱을 바치어 創刊된 雜誌이다. 本誌는 1954年 3月 1일에 創刊되었다.

編輯 兼 發行人: 曹炳燦

東國文學 東國文化社, 1955—

本誌는 東國大學校를 中心으로 한 教授, 學生, 同門들의 文學作品을 실은 綜合文學誌로서 그것이 創刊된 건 1955年 11月 1日이었다.

이 잡지는 校誌로서가 아니라 市場을 相對로 發刊된

것이였다.

編輯·發行: 同社

淑大學報 淑明女子大學校文藝部, 1955—

本報는 1955年 7月 15일에 창간된 淑大의 學報로서 本誌는 論文과 研究, 論評과 教養, 文藝 등으로 나누어 教授, 學生의 글로 채워져 있다.

發行人: 任淑宰, 編輯人: 姜漢永

아리랑 三中堂, 1955—

本誌는 을 스토리로 엮은 大衆誌로서 46版 324面 (창간호)의 面數로 1955年 3月 1일에 創刊되어 初期에는 大衆 雜誌界에 王者로 君臨했었다. 只今도 적지 않은 讀者를 確保하면서 계속 간행되고 있다.

編輯·發行 兼 印刷人: 徐載壽

女苑 學園社, 1955. 10~1970. 3

本誌는 月刊 女性誌로서 참신한 편집·풍부한 내용·세련된 체제, 저속하지 않은 기사 등 국내에서 손꼽힌 고급 여성지로서, 16년에 걸쳐 계속 간행된 잡지였던바 財政難으로 今年 들어 通卷175號로 3月 1日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編輯 兼 發行人: 金益達

零度 西歐出版社, 1955—1966

本誌는 詩同人誌로서 1955年 2月 1일에 創刊되어 1966年 1월에 通卷 第3輯으로써 終刊되었다.

그 同人(第3輯=復刊號)은 姜波烈, 金正鉦, 김현, 閔在植, 朴鳳宇, 朴盛龍, 孫光殷, 元亨甲, 尹三夏, 李盛夫, 李承龍, 李逸, 林步, 張伯逸, 鄭顯雄, 朱命永, 崔夏林 등 無等山麓 出身들이다.

“藝術集團” 現代出版社, 1955

本誌는 不定期刊行物로서, <傳統派와 前衛派의 相剋對立하는 藝術觀을 止揚하고 올바른 《모더니티》를 發見함으로써 眞正한 現代의 座標를 確定하여 藝術의 正統을 찾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世界藝術과의 交流를 期하고자>(창간호 편집후기)하여 창간된 잡지다. 1955. 7. 5—同年 12. 15. 通卷2號.

編輯人: 崔海雲, 發行人: 申斗生

展望 展望社, 1955.

本誌는 月刊 綜合誌로서, 1955年 9月 1일에 創刊되어 同年 11月 1日 通卷3號로 終刊되었다.

特色: 稷, 學園問題 등에 關한 綜合研究는 훌륭한 着眼이였다.

編輯 兼 發行人: 李漢稷, 主幹: 方基煥

哲 學 思想界社, 1955—

本誌는 韓國哲學會의 機關誌로서 哲學學報.

1955年 5月 10日 創刊.

編輯人: 韓國哲學會代表 高亨坤,

發行人: 張俊河

青 史 青史編纂委員會, 1955.

本誌는 青史編纂委員會의 機關誌로서, 大衆의인 歷史啓蒙 月刊雜誌다. 特히 <萬겨레는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모두 愛國心を 奮發하여 道義國家를 세워야겠다. 그리하여 우리의 最大 目的을 成功하려면 첫째 우리 民族思想이 統一되어야겠다. 思想이 統一되는 要素는 歷史를 밝혀서 祖國魂이 躍動하는 史觀을 確立함이 最大 急先務다.>—이런 立場에서 本誌를 創刊했던 것이다. 1955年 7月 1日 創刊. 終刊.

編輯 兼 發行人: 陳大善

學 叢 學叢社, 1955.

本誌는 社會科學을 中心으로 하여 學術 全般에 걸친 論究와 討論, 整理와 發表를 쉽게 하도록 創刊된 月刊誌 1955年 3月 1日에 創刊·終刊되었다.

面數: 菊版 120面.

編輯 兼 發行人: 綜合學術研究會

現代文學 現代文學社, 1955—

本誌는 月刊 文學雜誌로서 1955年 1月 1日에 創刊되어 現在도 계속 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 文學誌로서 現存한 것 중에서 가장 연조가 오래고 誌齡도 近 200으로 우리 나라 문학잡지 중 最高이고 또 권위 있는 잡지라 하겠다.

編輯 兼 發行人: 金琪午, 현재 金光洙

主幹: 趙演鉉

국문학 고려대학교국문학회, 1956—

本誌는 고려대학교 문리과대학 국문학회의 기관지로서 1956年 1月 10日에 창간된 국어·국문학의 연구지다.

本誌는 그 뒤 한 해에 한번씩 계속 간행되고 있다.

詩研究 山海堂, 1956—

本誌는 詩誌인 同時에 單純히 詩의 發表만 아니고 詩의 研究誌(汎詩壇的인——)로서 創刊된 것이다.

1956年 5月 31日 創刊.

編輯委員: 金顯承, 金春洙, 金潤成, 金聖旭,

金宗吉

新世界 昌平社, 1956—

本誌는 民主主義의 守護誌인 “自由世界”의 精神을 계승하여 政治·經濟·社會·科學·文化 等의 評論과 研究 및 創造, 그 調査 等의 發表誌인 月刊 綜合誌로서 1956年 2月 6日에 創刊되었다.

編輯·發行 兼 印刷人: 高在禧

主幹: 林肯哉

自由文學 自由文學社, 1956

本誌는 韓國自由文學者協會의 機關誌(通卷 40號부터는 自由文學社로 獨立되어 刊行)로서의 月刊 文學雜誌로서 1956年 6月 1日에 創刊되어 通卷71號까지 終刊되었다. “現代文學”과 더불어 손꼽힌 雜誌로서 推薦을 통하여 數 많은 新人을 文壇에 내놓은 功勞도 無視할 수 없다.

編輯 兼 發行人: 金琬燮

發行所: 韓國自由文學者協會

學園評論 學園評論社, 1956—

本誌는 道義教育을 指標로 하고 創刊된 月刊誌로서 1956年 11月 15日에 創刊되었다.

編輯 兼 發行人: 金柱永

花郎의 血脈 花郎道普及會中央總部, 1956

本誌는 花郎精神의 양양을 目標로 하여 조직된 花郎道普及會의 機關誌로서 1956年 10月 15日에 創刊되었다.

編輯 兼 發行人: 金榮敏

장학기금 모금현황

(11월 25일현재)

동성고등학교도서관	4,000
안동시립도서관	4,000
공군중앙도서관	4,000
서울특별시립남산도서관	6,000
배화여자중고교도서관	2,000
한국과학기술연구소도서관	2,000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0,000

서라벌예술대학도서관	6,000
진해고등학교도서관	4,000
시흥군립도서관	4,000
경북고등학교도서관	2,000
해군대학도서관	2,000
한국해양대학교도서관	2,000
심 용 섭	3,140
세금및진체 증금수수료공제	—338
소 계	5,4802
전 월 누 계	515,449
총 계	570,251